

온 누리 밝힐 東方의 등불

開校 82周年 紀念詩

일어나라
 잠든 영혼이 아를다운가 정말 아를다운가
 눈먼 종경 아래 속절없이 속속인 평화의
 불꽃의 옷자락을 벗어던지고
 환설토 밑고선 아를드리 역사 앞에
 피땀진 가슴마다 푸른 살점이 돌아오고
 항기로운 피침이 불거지도록
 부터보자 이제 장대바로 쏘아지
 눈을 뜨는 사랑이거든
 자유훈 자유의 할성이 또다시 날아오르고
 흔들진 진달래꽃 꺾어놓고 떠나간

불꽃 앞세우고 덩더꿩

崔

이 땅의 서러운 누이들의 머릿단이 수놓을이친다
 날아라
 외선 팔복의 정음이어
 부끄러울 것 없니 황공에 성난 깃발을 나누끼며
 순치의 날개는 버리고 눈부신 어깨줄기로
 절곡의 앞면을 뚫고
 오목의 시기를 뱉치고
 꿈 깨어나 일어서는 싱그러운 석탄들
 거룩한 백상의 이만 용사들이여
 불꽃 앞세우고 덩더꿩 한산자락 필력이며
 누들의 춤 화평의 춤
 역사 앞에 주극 앞에 죄 셋은 불부림

淳

烈

〈詩人: 崔교과교수〉

동참하라
 거대한 이리의 무리 승냥이의 떼로
 창백한 도서관의 그림자와
 앞전하게 엮인 아스팔트의 가슴도
 녹슨 강철의 껍질을 새로 닦고
 어지러운 거품의 학문도 물리치고
 울쭉린 비견의 정신을 반성하고
 수탈의 독청을 따라 동트는 새벽길에
 잠든 꽃 일개우는 한희의 해맞이 나서자
 등악의 고살마다 무사태평의 욕망을 걸어내며
 신명 날치게 팔 짊어 내달아보자



史奭源 (本校 미술과주·83년전국 대학미전 동양화 최고상, 84년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수상)



發行人 李智瑛 冠雨行
 編輯人 李瑛 李瑛 李瑛 李瑛
 印刷人 李瑛 李瑛 李瑛 李瑛
 主 幹 林英正 正浩煥
 編輯局長 申寬建
 編輯長 盧建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 華洞 3 街 26
 電話交換 室 8131~9
 本社直通 室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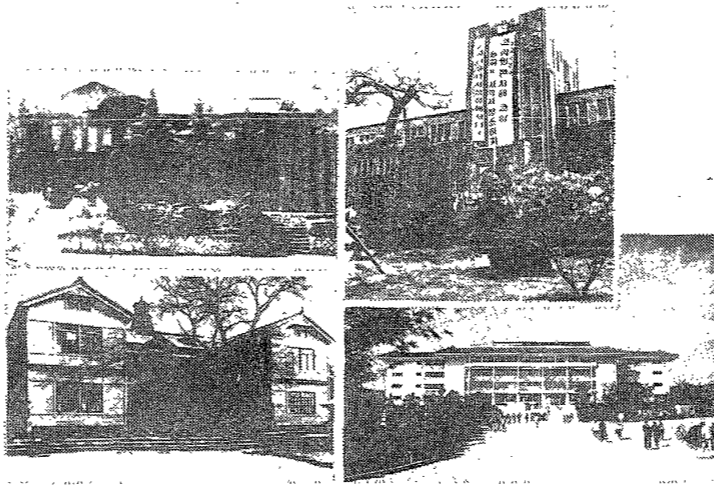
진리를 배우는 참된 벗었고, 바른길 함께갈 어진 친구 없거든 차라리 나 혼자 착함을 지켜 어리석어 죄짓는데 짝되지 말라.



開校 82周年
 東大新聞社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 동국대학교

〈우 리보라 진리의 동산 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동국대학교는 바로 이러한 이상으로 1906년 5월 8일 한국불교계 선각자들이 민족자본에 의한 민족교육을 부르짖으니 전신인 명진(明進)학교의 출발이었다.
 이후 본교는 불교사범학교—불교교등강숙—중앙학림—불교전문학교—중앙불교전문학교—해화전문학교로 교명을 바꾸며 그 발전적 여정을 서둘렀으니 이때부터 본교에 뜨겁고 진한 민족의 피가 학문과 사상의 풍향계 위에서 번져나갔다.



1946년 9월 20일 본교는 마침내 대학승격과 함께 「동국(東國)」이라는 교명을 정했으며, 1953년 2월 6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 승격과 1978년 10월 12일 경주캠퍼스 설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향내 가득찬 학문의 연지를 이루고 있다.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우리의 어두움 밝히노니〉
 이제 동국대학교는 개교 82주년을 맞으면서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이라는 교육지표를 다시금 새기고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힘찬 비상(飛翔)을 결의하고 있다.

1906~1988

社説

개교 82주년의 빛아

건국 82주년... 개교 82주년의 빛아... 1906년 5월 10일 개교한 본 대학교는...

「학원의 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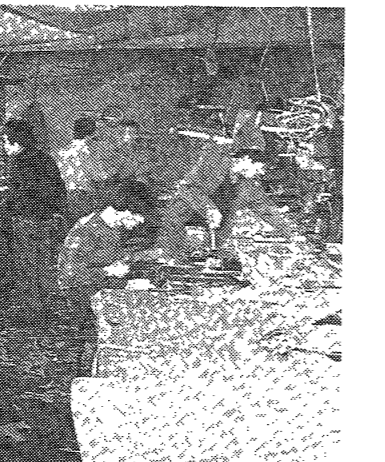
「학원의 전진」... 학원 교육의 중요성... 학원 교육이 사회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



時事論壇... 시사 논평을 위한 공간...

사람위에 사람없다

사람위에 사람없다... 인간관계의 소중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孫東鉉 (成均館大學 社會學部)

先성장·後분배 정책이 불평등 심화시켜

先성장·後분배 정책이 불평등 심화시켜... 경제 성장 후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노사분규가 생활수준의 불균형이 초래해

노사분규가 생활수준의 불균형이 초래해... 노사분규가 빈번해짐에 따라 생활수준의...

「유리화」의 필요성

「유리화」의 필요성... 유리화 정책의 중요성... 유리화 정책이 경제 발전에...

「유리화」의 필요성

「유리화」의 필요성... 유리화 정책의 중요성... 유리화 정책이 경제 발전에...

진정한 평등은 동등한 차등을 의미

진정한 평등은 동등한 차등을 의미... 진정한 평등은 동등한 차등을 의미...

「東發推」에 거는 기대

「東發推」에 거는 기대... 「東發推」 정책의 기대... 「東發推」 정책이 경제 발전에...

東國漫評

東國漫評... 동국漫評... 동국漫評이 경제 발전에...

Advertisement for 東國漫評, featuring a cartoon of a bull and text about the public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s 82nd anniversary, listing various companies and their products.

開校82주년 紀念揮毫

素石李鍾燦

<문과대 교수>

衆星共之

祝

東國發花

三春

李鍾燦

北辰居其所 衆星共之

<論語>

개교82주년 총장 기념사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大衆類의 精進을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82주년 이사장 告辭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飛翔하는 東國의 계기식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자리매김을 위한 提言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추 內 贈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꺼지지 않는 학문의 聖火... 자만하지 말고 冒으로 가꾸자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사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여 세계 각국에 선진문물을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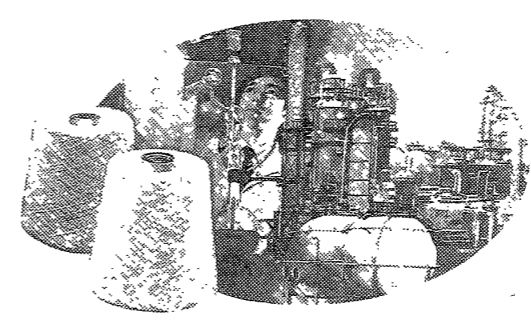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1906년 개교 이래로 82년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진리탐색'의 전통을 이어오며,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특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화'와 '융합'을 추구하며, '인성'과 '실용'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추구하는 '진정'의 대학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개교 8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 - 韓一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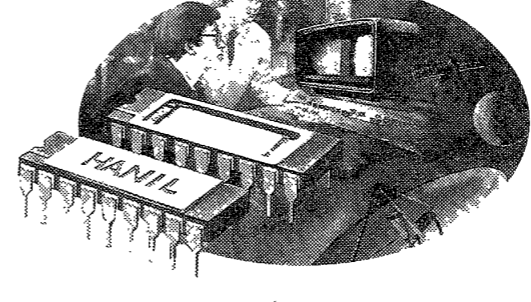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첨유·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규모의 아크릴 생산을 자랑하는 한일합성,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고급부직 섬유메이커 경남모직 등으로 세계에 수출한 한일합성, 한일합성-이형단면사·도선성섬유 등을 개발해 화학섬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한일그룹은 신소수섬유·고분자재료·정밀화학분야에도 적극 참여, 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스포츠제품개발연구소를 운영, 품격있는 소재개발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일그룹-한국의 상표 프레스코 스포츠웨어를 실용, 스포츠를 통한 건강생활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이트리젠시계와 부산, 동도컨도리클럽 등의 휴양시설과 레저공간을 갖추고 여가생활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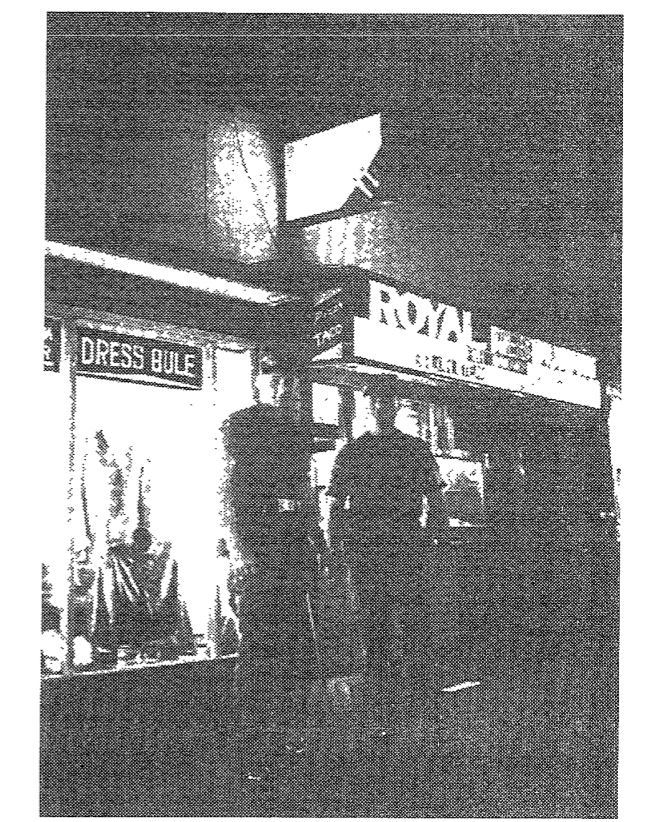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R & D)센터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습약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일그룹-각종 통신전자제품 분야에 참여하여 국산화를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한일그룹은 국제적으로도 초기기술단계에 있는 갈륨비소(GaAs)반도체 및 광통신소재 생산을 추진, 고도 정보화시대를 겨냥한 편리한 생활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韓一그룹
• 한일합성 • 국제상사 • 경남모직 • 동서화학 • 부국증권 • 하이트리젠시계-제우
• 하이트리젠시계-부산 • 진해화학 • 통도컨도리 • 한일건설 • 한일개발 • 연암물산

미국의 특별취재

미국 특파원 리처드 로저스는 10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인의 문화'에 대해 논평했다. 그는 미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 그는 또한 미국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융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미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 미국 문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융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



미국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미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미국문학의 상상’ 정신적·정체론적·우리의 문화를 침식·파괴하면서 문화 중추현상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문학의 상상력은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정체론적·정체론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상상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문학의 상상력은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정체론적·정체론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미미국의 국제협력의 중요성

미국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 미국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 미국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자국 권익 보호·정치적 영향력 행사 해외 전진 배치 전략의 일환이로 한반도 이용

한국은 자국 권익 보호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해외에 전진 배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자국 권익 보호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해외에 전진 배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다.

미국 문학의 상상력은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정체론적·정체론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문학의 상상력은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정체론적·정체론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별취재단

- 인수원 <특별취재>
- 김민 <특별취재>
- 이희 <특별취재>
- 전우석 <특별취재>
- 지혜 <특별취재>

미국 문학의 상상력은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정체론적·정체론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문학의 상상력은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정체론적·정체론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획〉

미국 문학의 상상력은 하층계급의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문학의 정체론적·정체론적 측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Action Live
명동 마이하우스

영능방송 하영 방
성우의 자선과
성우의 황금 노래
D.J. 하영 방

민해경 & 김완선의
퍼져드라이브
Action Live

개그 DJ
서세원 조금삼 이봉원

4F 기본
5F 음료권으로 모셔요

단체예약 777-6861

명동 마이하우스

민해경 · 김완선

Action Live

명동 마이하우스

영능방송 하영 방
성우의 자선과
성우의 황금 노래
D.J. 하영 방

민해경 & 김완선의
퍼져드라이브
Action Live

개그 DJ
서세원 조금삼 이봉원

4F 기본
5F 음료권으로 모셔요

단체예약 777-6861

명동 마이하우스

金小葉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남들 모르는 순화된 사랑의 아름다움,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된 사랑의 길

영원한 사랑의 아름다움,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된 사랑의 길

그대는
별로 뜨고

文學世界社 (764)2672

제1회 대학생논문 현상공모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국민은행은 일반 대중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국내 최대 은행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질리타당과 더불어 급변하는 경영,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하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견해를 은행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배가와 역량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공모분야(5개종 택일)**
가. 국민주 대안 기업으로서의 국민은행의 발전방향
나. 민영화와 관련된 국민은행의 발전방향
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육성방향
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민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마.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경영전략
바. 경제발전 위한 기업체로서의 역할과 중대방안
- 응모마감일**
● 1988년 9월 20일(화)
- 당선작 발표**
● 1988년 9월 20일(화)
(당선작 개별통지 및 당선 본문을 게시)
- 상금**
● 대상: 1편 300만원의 상금
● 준대상: 3편 이내 각 100만원의 상금
● 은상: 5편 이내 각 50만원의 상금
● 동상: 15편 이내 각 10만원의 상금
- 응모요령**
● 논문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의 (10매의 외곽을 제외함)
● 1인당 응모논문 및 2인 이상 공동응모 제한 없음
● 제출처: 당행 조사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9-1, 우편번호 100-703) 또는 각 영업점
- 기타**
● 우수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제출시 우대함.
● 논문제출자 전학이제 기납품을 증명함.
● 논문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계좌명세서 1통을 첨부
●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행 조사부로부터 문의함
(전화번호 771-40 교환 2294)

지난6일, 開校 82주년 기념식 거행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



△개교82주년 기념식이 지난6일 중랑캠퍼스에서 열려 동국대총장의 결의를 새롭게 했다.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

재향군인회관 일주신도 가져

동국대학교는 6일(수)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일주신도에서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라는 주제로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김기현, 재향군인회관장 김기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慶州총신 내달 1일 치뤄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어김없이

동국대학교는 5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일주신도에서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라는 주제로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김기현, 재향군인회관장 김기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교82주년 기념식이 지난6일 중랑캠퍼스에서 열려 동국대총장의 결의를 새롭게 했다.

본과교수 11명 선정돼

본과교수 11명 선정돼

동국대학교는 5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일주신도에서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라는 주제로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김기현, 재향군인회관장 김기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정치활동금지조항 폐지

새학칙안 학처장회의서 심의 의결

동국대학교는 5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일주신도에서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라는 주제로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김기현, 재향군인회관장 김기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기 고교유구 개막

9일 체육관서

동국대학교는 5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일주신도에서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라는 주제로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김기현, 재향군인회관장 김기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경상대 농성 계속돼

교과과정개편·장학금공개를

법률학과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과정 개편과 장학금 공개를 요구하며, 학교 측의 불응에 항의하고 있다.

농성자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라문화학사

신라문화학사

신라문화학사는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학사는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慶州복지종합금 지급

총 72명에게 각 10만원씩

동국대학교는 5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일주신도에서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라는 주제로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김기현, 재향군인회관장 김기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마스터플랜 제시 등 요구

특별추진실장들과 간담회 가저

동국대학교는 5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일주신도에서 '名門東國의 위치 굳건히 할때'라는 주제로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김기현, 재향군인회관장 김기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기현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82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족·민주교육의 선도역할 다짐'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총장은 "동국대는 82년 동안 민족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경상대 농성 계속돼

교과과정개편·장학금공개를

법률학과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과정 개편과 장학금 공개를 요구하며, 학교 측의 불응에 항의하고 있다.

농성자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라문화학사

신라문화학사

신라문화학사는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학사는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법과·경상대 농성 계속돼

교과과정개편·장학금공개를

법률학과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과정 개편과 장학금 공개를 요구하며, 학교 측의 불응에 항의하고 있다.

농성자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라문화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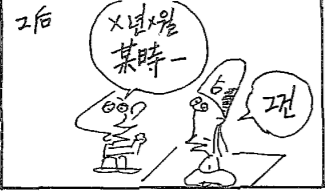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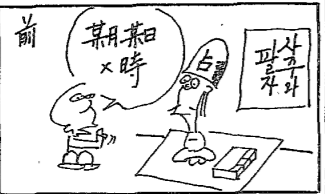
신라문화학사

신라문화학사는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학사는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신라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어로나

오 황 <64>



지옥감시다

정병조 著

본교 교수 (국민윤리학과)인 정병 조씨의 불교 평론집 「지옥 감시다」가 정우사에서 나왔다. 「어둠속의 등불로」 「한국·한국인 그리고 불교」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와 현대사회」 「불교의 고향·인도」 「보살의 길」 등 평론적 성격의 불교관계 에세이를 묶어 한국불교의 좌표와 한국인의 종교관을 재조명하고 佛敎의 현대적 의의와 오늘날의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정우사刊·293면·3천5백원>



이달의 시

우수의 이불을 덮고

—이기철 작

1. 풀들이 옥실거렸고 살기 짝은 벌이 쏟아졌다
그 만큼의 빛보다 섰한 비가 내렸고
입적기의 일날같이 하늘이 어깨를 짙어 눌렀다

2. 그는 군살진 손을 내밀어 술을 권했다
잡혀버리지
그의 잔은 나의 잔을 얻을 듯 사 나왔고, 씩씩했고
그러나 오래 견디지 못하여 쓰러 졌다
모든 것을 알겠다는 시능의
머금은 영수증을 떼었고 굳어진 그의
몸은 허수방에 누워서도 오랫동안 풀리 지 않았다

3. 나는 떨고 있었다 허반신이 달아 난 여자를 안고
이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크흐름 웃을 뿐
기차에 오르면 그녀의 방에
여류사인 某氏의 시집을 놓고 온 것을 후회 하였다

정연길 <문과대 국문과>



詩人は 자신의 삶과 靈의 創造의 순간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창조와 영적순간에 시인은 자신이 삶과는 유리된, 외따로 떨어진 고고하고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만일 그 영적인 절대 절묘의 시간과 우리의 구차한 삶과의 사이에 짐작거리가 있다면 李超群의 시집<우수의 이불을 덮고> (民聲社刊)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시들은 그의 삶이 자칫 빠지게 될 속세의 타성의 심연으로부터 그를 건져올리려고 하는 수많은 말버들의 몸짓이기 때문이다.

李超群은 그 타성의 심연을 「원고지와 분필밖에 모르는 文生」, 「승관의 분필, 침묵의 잉크, 창백한 책장」, 「내일은 학위논문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때야 봉급카드가 배달되고 강의실 계산단을 오를 수 있다는데」, 「나의 불행은 명령을 적어본 일이었다」, 「홀어진 사람끼리 읽는 열서의 열필 글씨라도 되지 못하는 내 삶, 오늘도 두 통의 편지를 쓰지 않고 마음의 단추를 잠가 버렸다」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삶에 안주하려는 것을 부각시켜 준다.

게다가 그의 이윳이 들 달고 사는 나라와 地上의 모습은 어떠한가?

「북쪽에는 철조방 남쪽에는 市場攤이 남아 우물거립니다. 스펀에는 군병, 서편에는 민병이 있어야 하고」, 「정권은 바래고 허

◇국교과 신입생 백일장 산문부 장원



멀리 눈독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장독대 뒀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이젠 정말 꽃피고 새우는 새들이 찾아왔다.

여기는 어느 농촌의 소박한 초가집이다. 파사로운 햇볕 쏟아지는 마당에는 바둑이가 한 기로이 즐기고 있다.

오늘은 읍에서 5일장이 서는 날이다. 열린 문들사이로 보이는 방에는 새까만 얼굴의 촌부가 좌장을 하고있다.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경대를 쳐다보며 열심히 분을 두드리고 있는 촌부..... 그 열 연 코흘리게 어리둥절이 떨리 리 하라고 칭얼내고 있다.

촌부의 손은 더욱 빨라지고 마음은 한층 좁아진다. 이제 드디어 끝이다.

바둑이의 배를 잡고 짜리뭇을 나선다.

촌부의 얼굴과 코흘리개의 얼굴 모두 함박웃음이 활짝 피어 있다.

여긴 읍이다.

복직하는 사람들 사이로 이것저것 들전고 흐르는 촌부와 마당에서 눈팔사람을 사달라고 촌부의 손을 잡아끄는 코흘리개가 보인다.

듣은척도 않는 촌부. 그녀에선 눈팔사람보다 양말과 고무장갑이 더 곱하다.

어스름 핑거미가 지는 저녁이다.

지평선에 까만점 두개가 어렴풋이 보인다.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고 한손엔 꼬마를 잡은 촌부와 일에 커다란 눈팔 사람을 들고 있는 코흘리개다. 그들의 얼굴엔 단추한 미소가 아려있다.

황 년 기 <사범대 국교과>

작은 삶의 주인들을 향하여

속세와 타성의 심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짓

위의 법전은 두께를 더해 가고 운데 그를 부추기고 힘이 되며 「군데군데 열린 땅이고 군데군 데 눈물자국이군. 군데군데 피켓과 함성이고, 최후가스고 황사바람」이며 「지상엔 나뭇이 없다고 오늘날도 벌레들은 땅 밑에 집을 짓고/새들은 하늘로 날아오

운데 그를 부추기고 힘이 되며 「군데군데 열린 땅이고 군데군 데 눈물자국이군. 군데군데 피켓과 함성이고, 최후가스고 황사바람」이며 「지상엔 나뭇이 없다고 오늘날도 벌레들은 땅 밑에 집을 짓고/새들은 하늘로 날아오

극복을 이웃과의 共同體의인 유대감으로 가리곤 한다. 「악기보다 더 순한 목소리를 가진이웃」 「따뜻한 일도 머러일어나는 이웃, 그러나 늘 「제 기르는 병 하나씩을 눈독에 감추고」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걸어 갈수록 그에겐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행들이 왜관 전후에서 전사한 용사의 아내가, 불 대신에 강을 택한 선배 시인이, 「수십년간 사람을 배우고 우정의 소금맛을 익힌」 스물 두 살들이 그 예전 끝없는 책이 된다. 그 책은 「허공 속에 있지 않고 토담 위에 있고/우주에 있지 않고 정신 속에 있고」 또한 「너와 나의 눈썹 속에」 또한 「너와 나의 숨 속에」 있다.

그리하여 李超群은 그의 다음 세대가 「호적계에 가야 비로소 이 몸이 확인되는」 「작은 삶의 주

작은 삶의 주인들이 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며 허공속에 있지 않고 토담위에 있고 구호에 있지 않고 정신속에 있고 또한 너와 나의 눈썹속에 반달로 뜨고 싶어 시인은 노래한다

「산것은 모두 떠나고 죽을 만 이곳으로 돌아」 오는 곳이다.

그러므로 삶은 살아볼수록 고단하고, 시간은 흘러갈수록 알뜰한 것이 된다. 일곱 살때 외던 꽃잎을, 열에 살때 외던 소년 이름은 서른을 넘고 마흔이 되면 주시과 동기 문사와 아파트 이름과 정장대포, 재벌 총수 이름만 바뀌어지고 그 옛날에 부르던 이름들만 향수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있다. 떠나나 「나의 할아버지는 전기불을 켜보지 못하고 살았」 지만 나의 아버지는 기차를 타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초음속 비행기와 시속 백킬로의 기차들」 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맘 놓이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일 우리가 걸어갈 들녘에 꽃이 피게 될지, 벌이 풀릴지, 아침이 열리게 될지 알수없다. 아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사다타라는 낮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다.

이토록 절망적인 그의 時空가

「산것은 모두 떠나고 죽을 만 이곳으로 돌아」 오는 곳이다.

그러므로 삶은 살아볼수록 고단하고, 시간은 흘러갈수록 알뜰한 것이 된다. 일곱 살때 외던 꽃잎을, 열에 살때 외던 소년 이름은 서른을 넘고 마흔이 되면 주시과 동기 문사와 아파트 이름과 정장대포, 재벌 총수 이름만 바뀌어지고 그 옛날에 부르던 이름들만 향수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있다. 떠나나 「나의 할아버지는 전기불을 켜보지 못하고 살았」 지만 나의 아버지는 기차를 타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초음속 비행기와 시속 백킬로의 기차들」 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맘 놓이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일 우리가 걸어갈 들녘에 꽃이 피게 될지, 벌이 풀릴지, 아침이 열리게 될지 알수없다. 아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사다타라는 낮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다.

이토록 절망적인 그의 時空가

「산것은 모두 떠나고 죽을 만 이곳으로 돌아」 오는 곳이다.

그러므로 삶은 살아볼수록 고단하고, 시간은 흘러갈수록 알뜰한 것이 된다. 일곱 살때 외던 꽃잎을, 열에 살때 외던 소년 이름은 서른을 넘고 마흔이 되면 주시과 동기 문사와 아파트 이름과 정장대포, 재벌 총수 이름만 바뀌어지고 그 옛날에 부르던 이름들만 향수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있다. 떠나나 「나의 할아버지는 전기불을 켜보지 못하고 살았」 지만 나의 아버지는 기차를 타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초음속 비행기와 시속 백킬로의 기차들」 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맘 놓이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일 우리가 걸어갈 들녘에 꽃이 피게 될지, 벌이 풀릴지, 아침이 열리게 될지 알수없다. 아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사다타라는 낮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다.

이토록 절망적인 그의 時空가

절망적인 그의 時空가운데 그를 부추기고 힘이 되며 책이 되는것은 그의 시집을 통해 드러나 듯이, 고향으로의 회귀, 이웃의 끊임 없는 노동의 모습 인 것이다.

이 는 이상하다. 그는 그가 농촌을 떠난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들만 하나가 무너지고, 빛밖에 가리워져 내 이름 적힌 나라, 본적지도 무너졌다」 라고까지 자백한다. 그는 이러한 자책적의

인들이 되」는 세상이 오게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혜순 <詩人·문학평론가>

수습기자 추가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 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眞眼으로 파헤 쳐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 약간명
 - ②응시자격: 1학년 男女在學生
 - ③모집분야: 일문기자, 사진기자
 - ④제출서류: 本社소정양식1통, 명함판 사진1매(본사총무부 및 학생회관 수 위실서 배부중)
 - ⑤원서접수: 5월12일(木) 오후4時限
 - ⑥시험일자: 5월12일(木) 오후5時
 - ⑦시험과목: 1차필기—국어·상식·작문 (사진기자는 작문대신 실기) 2차면접—1차필기대신 한말
 -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시험장소: 서울은 학림관 J201.
- ※학생記者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東大新聞社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 역할을 한 것이 「관계관대회의 회」라는 사실은 이러한 고 분이나 은폐·조작등의 범죄가 단순히 일선기관에 있는 것이 아닌 부도덕한 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에 이어 재차 실감케 했다. 인천지검이 검찰과 검찰장이 맞고소한 지난 86년 7월

3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 일주일만에 수사를 마무리짓고 대검에 문건장에 대한 구속기 소 의견을 올렸으나 「관계관 대회의 회」의 막대한 반대에 부딪혀 발표권이 하위로 발표되 고 말았다는 사실은 공권력이 정권안에서 얼마나 무력하며 「국 부각시」가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욱

미(?) 있는 젊은 부처에서

성한 자체보존자대로 관련 경관 들의 입을 맞추어 성교문사상을 조작한 사실과 문건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외상장부를 파기한 사실, 동료경관들의 허 위진술등의 일련의 행동들이 영 화의 한도밖으로서 손색이 없 다는 점이다.▲정권의 치부를 드러 내는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배후 에서 해명사노릇을 해오던 「관 계관대회의 회」라는것이 그리 한 비리나 은폐·조작하는 「無 所不爲의 權座인지」는 모르겠다.

▲다란, 차근차근의 은폐·조 작으로 인해 6·29학살사건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영 현 정권은 명심하고 더이상 의 권유원과 그에 따른 은폐·조 작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 지나친 요구 인지 모르겠다.

<煥>

당신의 시간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는 OPEN! 카페

● 장기간 식사숙고환 기획!
● 40여일만에 완성한 극치의 인태리아...!!

- 120명 대용규모, 한, 양식 방대한규모로 이원화
- 다자간 대화식 식사와 심층적 자유인 인분 살려 호수...
- 일일특수 가리는 사별한 전래의 종교가들
- 한가로운 대안하는 유희의 환경...
- 시원하게 맑아지는 인공폭포
- 인공을 가로지르는 여객에서 사별의 소원을 품은 원인으로...
- 4면 벽을 제외한 수평적 보편적 공간...

● 분할하여 제공되는 열한 개의, ● 전통적인을 제외한, 최첨단의 장비

Café Restaurant? 120명 대용규모, 한, 양식 방대한규모로 이원화, 다자간 대화식 식사와 심층적 자유인 인분 살려 호수... 일일특수 가리는 사별한 전래의 종교가들, 한가로운 대안하는 유희의 환경... 시원하게 맑아지는 인공폭포, 인공을 가로지르는 여객에서 사별의 소원을 품은 원인으로... 4면 벽을 제외한 수평적 보편적 공간...

● 분할하여 제공되는 열한 개의, ● 전통적인을 제외한, 최첨단의 장비

두번, 제, 선택

PHONE. 2-4200-3-0708

타자기 선주자 라이카의 첨단기술이 이룩한 또 하나의 개가!

국내최초 20만원대 한영검용 전자타자기

박사님, 교수님 리포트 작성용, 학생용(논문 작성용)으로 부담없이 구입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가장 저렴한 가격의 한영·영문 겸용
- 미려하고 다양한 글씨체(명조·고딕·클림서·작은글씨 등)
-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 오토방지 기능
- 초보자도 쉽게 배우고 빠르게 타이핑

SPECIFICATIONS

최대용지 폭: 10, 12'(260m/m)
최대인자 폭: 8.0'(203m/m)
인자 속도: 10CPS(Max)
프린팅 피치: 10, 12
라인스페이스: 1.1-11.2, 2
KEY의 수: 44/96
C O P Y: 1+3
전 원: 100V/60Hz
중 량: 4.0kg(8.81bs)
제 품 가 격: ₩ 297,000

구입안내

- 6개월~36개월 할부로 구입하십시오.
- 은행신용카드-타자기는 지금 당장 쓰시고, 매달 다음달부터 월 9,000원씩 은행에 입금해 주십시오.
- 은행신용카드가 없는 분은 부모, 형제, 친구에게 딱! 한번만 빌려서 할부로 구입하십시오.

사무기기전문업체 라이카(주)

● 전세전화: (02)741-1661/2
● 주 소: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가든타워 10F)
● 대체구호: 010579-31-1272038(우체국)

☎ 해진서관 718-2468

● 전세전화: (02)741-1661/2
● 주 소: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가든타워 10F)
● 대체구호: 010579-31-1272038(우체국)

☎ 해진서관 718-2468

전국 대학신문 주간교수 70인의 컬럼

휘청거리는 時代의 뜰을 거닐며

尹在天 編

휘청거리는 時代의 뜰을 거닐며, 버릇처럼 되여 어지는 무수한 날말들—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이들의 가슴앓이다. 너무나 처절한, 처절한 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다. 먼지 묻은 경우가 아니고, 반경거림이 아니기에 아니, 그렇게 깎여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기에 돌이 이름을 새기듯, 모래위에 바람을 실듯 조심스럽게 써 내려간 이 時代 知性들의 熱望, 그리고 간절한 기도.

韓人으로서 그리고 韓 時代의 主體로서 감지 하는 오늘의 현실은 절망적일 수도, 아니면 낙 관적일 수도 있다. 전지로 판단한다 하여 부정적 인 인물이라 볼 수 없고, 후자로 인식하고 있다 하여 긍정적인 사고의 소지자라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 대학의 구입신청은 (수) 해진서관

☐ 전 화: (02)741-1661/2
☐ 주 소: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가든타워 10F)
☐ 대체구호: 010579-31-1272038(우체국)

☎ 해진서관 718-2468

공 고

1988학년도 계절수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1. 수업기간
①학점인정과목: 88년 6월27일(월)~7월18일(화) (16일간) 예정
②학점비인정과목: 88년 6월27일(월)~7월22일(금) (20일간) 예정

2. 개설대상과목 및 기준인원(수강료)

구	분	개 설 대 상 과 목	개 설 인 원	수 강 료
학점인정과목	88학년도 1, 2학기 전교과목 (단, 교편, 교육실습, 현장 실습 제외)	10명 이상	1학점당 32,000원	
	영어회화·독어회화·일본어회화·중국어회화 (경주 캠퍼스 개설)	30명 이상	상과목당 10,000원	

3. 수강신청
①수강자격: 88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으로서
②초기졸업희망자
③재수강자 (해당과목 과목(F)자)
④학점교류희망자 (서울·경주캠퍼스간)
⑤일반선배희망자
⑥신청학점: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수강신청
⑧기간: 88년 5월11일(수)~5월17일(화) (6일간)
⑨교부 및 접수처
가. 학점인정과목: 교무과, 이부대학교과과
나. 학점비인정과목: 외국어교육과
⑩개설과목 확정 발표: 88년 5월24일(화)
⑪수강신청변경허가: 88년 5월24일(화)~5월26일(목) (3일간)
⑫수업시간표 발표: 88년 6월 7일(화) 예정

4. 성적처리
①재수강과목 성적은 최고B+로 평가한다.
②초기졸업희망자 및 일반선배자의 성적은 최고A+로 평가한다.
③학점비인정과목은 성적이 반영하지 않는다.
④개설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장학선발 및 학사정제와는 무관함.
⑤취득학점이 과목(F)인 경우에는 학적부에 등재하지 않는다.

1988년 5월10일
교무처장